

(주)드라발, 한국 낙농목장의 미래를 위한 국제세미나 성황리 마쳐...

자동로봇착유시스템(자동로봇착유기)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전국에서 많은 낙농가와 낙농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월10일 (주)드라발(한국지사장 펠리페 모레노)은 의정부시 소재 예술의 전당과 양주시 소재 연산목장에서 ‘한국 낙농목장의 미래를 위한 국제 세미나’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주)드라발은 스웨덴에 본사를 둔 130년 전통의 낙농기자재분야의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서 한국의 낙농업이 FTA 등으로 큰 변화와 도전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낙농산업에

대한 국제적 정보 및 드라발의 현장경험의 공유를 통해 한국 낙농목장의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과 낙농가에게 새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데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기여를 하고, 또한 자동로봇착유시스템에 관심이 많은 만큼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동시에 쾌적한 낙농환경을 통한 생산성 제고 및 윤택한 낙농생활의 안정화를 추구하는데도 새로운 경영적 마인드를 갖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일환에서 추진하였다고 하였다.

이날 세미나의 강사진은 드라발의 각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유익한 내용을 준비하여 강연해 주었다.



먼저 첫 번째 발표 주제인 “드라발과 세계적 추세”에 대해 마이클 휴스 동아시아지 부장의 발표로 시작되었으며, 최근 세계 무역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커져가고 있고 그 영향력이 한국의 낙농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축산업에까지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그 흐름을 조금이나마 파악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가 제공된 시간이었다. 특히 드라발이 추구하는 목표가 원유품질과 식품생산, 동물복지의 향상 및 착유자와 동물의 환경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으며 더불어 드라발의 활동상황을 통해 낙농업의 세계적 흐름도 엿볼 수 있었다.



두번째 주제인 “우유 생산성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사양환경”에 대하여 바바라 스트링크씨의 발표가 있었는데 쾌적한 사양환경이 생산성 제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특히 발굽 건강과 축사형태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실제 우리 낙농가들이 자칫 가볍게 생각하여 소홀히 다룰 수 있는 환경에 대해 지적하며 개선할 것을 주문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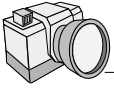
세 번째 주제는 “VMS 시스템에서 효과적인 영양급이”에 대하여 레렉 야로즈 박사의 발표가 있었다. 4가지 큰 내용으로 발표한 가운데

‘10가지 급이원칙’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소는 1일 10~12회 섭취한다면서 24시간 자유로운 사료 접근성에 대해 설명하였고 또 복지부분에서도 소는 매일 40km 마라톤을 뛰는 것과 같은 신진대사 활동을 한다면서 항상 편안한 환경이 유지되어야만 산유량이 증가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드라발의 급이 우선방식에 대한 개념 및 드라발이 제시하는 급이 솔루션 설명이 있었고 한국의 젖소 급이 실태에 대한 설명시 벗짚은 비유초기에 적은 양 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마지막 강연은 VMS마케팅 총괄책임자 티에리 페로틴씨의 ‘자발적 로봇 착유시스템과 한국 낙농목장의 맞춤형 대안’에 대한 주제로 발표에서

“전 세계에 설치된 로봇착유기는 2006년말 현재 4,500여 목장에 6,500기의 로봇착유기가 보급되었고 목장 한곳에 로봇착유기가 1.5대꼴로 3년 전에 비해 2배가 상회할 정도로 확산되는 추세라고 하였다. 특히 최근 추세에 대한 설명에서 시장 추세는 시장 성숙도의 차이가 있을 뿐 전세계적으로 대동소이하며 스웨덴의 목장 75% 이상이 축



드라발 VMS 1호기 연산목장 설치기념 현판식



자동착유시스템 VMS 견학현장

사 리모델링 또는 신설시 로봇착유시스템 도입을 하고 있고 덴마크의 경우도 목장 70% 이상이 로봇착유시스템으로 전환 중이며, 네덜란드 또한 목장 50% 이상이 로봇착유시스템으로 전환 중에 있는 등 유럽 최대 국가들에서 15% 이상의 도입률을 나타내고 있고 조만간 축사 시스템 신설목장 가운데 절반이 로봇착유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하였다. 자동로봇착유시스템을 통해 취할 수 있는 많은 이점, 특히 경제성 향상, 동물복지 향상, 낙농업계에 주는 이익 등 현실을 반영한 다양한 설명이 덧붙여졌다.

이날 2부 행사는 드라발의 제1호 VMS가 설치된 연산목장(대표 김삼용진)의 시연회장으로 이동하여 간단한 기념행사 및 자동착유시스템 현장을 4개 그룹(그룹1. 목장의 운용 및 관리, 그룹2. 자동착유시스템 VMS, 그룹3. 급이 우선 개체이동, 그룹4. 기계실 & 냉각실 견학)으로 이동하며 견학하였다.

이날 연산목장 대표 김삼용진씨는 인사말을 통해 최근 낙농기들의 자동로봇착유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연산목장도 경영적 차원에서 여러 검토를 통해, 특히 후계자를 위한 차원에서 깊이 고심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자동로봇착유시스템에 관심있는 많은 낙농가에게 실제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많은 궁금증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연회를 준비하였고 분명한 것은 자동로봇착유시스템 도입을 계기로 우리 낙농산업이 한 차원 높게 성장 발전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주)드라발은 이미 '87년도에 낙농관련 제품을 통해 한국시장에 진출한 기업으로 현재 본사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 한국지사를 두고 있으며 국내 시장의 60%가 드라발 제품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고객 곁으로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낙농가에게 전문적인 현장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목장주가 시스템의 뛰어난 모든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드라발은 자동착유축사에 필요한 모든 시스템, 즉 자동착유기를 비롯한 목장의 우사설계, 우상형태, 분노처리, 급이와 냉각, 소의 환경 개선 등을 위한 통합적인 시스템의 제공을 통해 고객에게 큰 만족과 신뢰를 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드라발 제품의 고객은 모든 농가가 아니라 꼭 필요로 하는 농가라며 그런 농가를 위해 앞으로 정보공유를 위한 노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였다.